

호재 사라져 1년새 4천억 급감

도내 종합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전체 시평액 8조2,711억원

요진건설산업 16년 연속 1위

강원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일감 부족' 여파로 1년새 4,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지난 한 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지난 31일 공시했다. 도회에 따르면 도내 토목건축공사업 등 5개 업종의 전체 시평액은 총 8조2,7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35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분야 시평액이 총 3조7,5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54억원 감소했다. 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383억원)과 조경공사업(9,331억원) 시평액도 전

◇2019년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순위

순위	업체명	시공능력평가액	지역
1	요진건설산업(주)	379,634	원주
2	에스진건설(주)	127,665	원주
3	신화건설(주)	105,133	강릉
4	(주)효성	99,878	영월
5	(주)대건	97,087	춘천
6	(주)우일	95,302	강릉
7	현대아산(주)	80,397	고성
8	상리건설(주)	71,518	춘천
9	정상종합건설(주)	57,046	원주
10	(주)동서	54,447	춘천

〈자료:대한건설협회 도회, 단위:백만원〉

년보다 각각 738억100만원과 988억4,000만원 줄었다. 반면 토목공사업(1조7,953억원)과 건축공사업(1조3,495억원) 시평액은 각각 442억원과 1,102억원 증액됐다.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이 같은 시평액 감소의 원인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건설산업 호재를 이어갈 마땅한 개발 사업이 부재했던 점을 들었다. 여기에 건설현장 취업 기회현상이 불러온 '일감 부족'이 인건비를 상승시킨 점도 업체들의 경영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평액 평가기준인 경영평가액 규모는 전년 대비 2,218억원 축소된 1조2,096억원에 그쳤다. 이에 업계는 시평액이 공사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평액 규모 축소가 도내 업체들의 공사수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로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시평액 3,796억원으로 16년 연속 도내 1위를 유지했다. 특히 요진건설산업은 전국 77위를 기록, 도내 토목건축공사업체 중 유일하게 전국 100위권에 진입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일감부족·과당경쟁 무실적 업체도 속출

전문건설업계

전년비 5,400만원 준 17억여원 무실적 업체 61곳... 9곳 늘어나 대형 업체 지역 이탈도 심각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일감 부족과 업계 내 출혈경쟁, 업체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기반이 휘청이고 있다.

지난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가 공시한 '2019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도내 17개 업종, 2,294개 업체의 지난해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은 17억2,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4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평균 경영평가액이 1년 새 3,600만원 줄어든 7억9,800만원으로 평가기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무실적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도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무실적 업체는 총 61개사로 1년 전에

◇2019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업종별 1위 업체 현황)

업종	상호	지역	시공능력	업종	상호	지역	시공능력
실내건축	금강아트	강릉	9,537	상하수도	웰텍(주)	횡성	8,502
토공	(주)한길	영월	17,602	보링	(주)제이에이치	춘천	11,732
습식방수	(합)번영상공	원주	8,991	포장	대상이앤씨(주)	원주	12,871
석공	(주)대덕종합건설	평창	5,120	수중	경진건설(주)	강릉	10,312
도장	(합)번영상공	원주	8,078	조경식재	경신조경원(주)	삼척	4,479
비계	(주)대원	원주	8,556	조경시설	(주)양투카에스엘	춘천	7,239
금속창호	호성건설산업(주)	평창	14,066	강구조물	(주)효명이씨에스	원주	6,691
지붕구조	그린건설환경(합)	정선	5,008	승강기	큐엘리베이터(주)	원주	2,205
철콘	(주)한길	영월	17,174				

〈자료: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단위:백만원〉

비해 9개가 늘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업계 내 과당경쟁 구도다. 일감 부족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는 되레 늘면서 한정된 일감을 두고 업체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도내 전문건설업체 수는 총 3,555개로 1년 전보다 199개 많다. 여기에 대형 전문건설업체들의 지역 이탈 또한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2016년 기준 도내 실적신고액 1위를 기록한 (주)대련건설이 2017년 8

월 분사 소재지를 화천군에서 인천시로 옮겼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강원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로 강릉의 금강아트가 시평액 95억3,700만원으로 실내건축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토공분야에서는 영월의 (주)한길이 시평액 176억2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윤종현기자